

# 다문화시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권순희\*\*

## <차 례>

### I. 서론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2. 다문화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 흐름
3. 문화간 의사소통의 정의
4. 자료 수집 방법

### II.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1. 문화간 의사소통 자료 제시틀
2. 문화간 의사소통 일화
3. 언어문화 이해의 변화
4. 국제화된 한국어
5. 언어문화 텍스트 자료

### III. 결론

## I. 서론

###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일반인에게 국제화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 이 연구는 2009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 전주교육대학교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 결혼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현실화 되면서 국제화가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국제화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언어의 심층을 이루는 문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8년 국제 경영개발연구소(IMD)가 실시한 이문화 적응력<sup>1)</sup> 평가에서 조사 대상국 46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정현숙, 2005 : 169)가 있다. 다문화 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제는 외교관과 같은 국제적 업무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문화간<sup>2)</sup>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이웃에 외국인이 살고, 귀화인이 살면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sup>3)</sup>과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가 증가하면서 그들과 의사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현실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간 접촉을 했을 경우 갈등이 쌓이게 될 것이고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문화간의 미묘한 차이로 빚어지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라는 것이 일상적인 언어 생활, 감정, 행위 수준에서 얼마든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간 의사소통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 넘어 낯선 문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 1) 이문화 적응력이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과 능력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일본의 소니가 현지밀착형 경영을 위해 ‘Made in Japan(일본제품)’ 대신 ‘Made by Sony(소니 제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문화 적응력을 높인 경영 방식이다(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mation 377호).
- 2) 본고에서는 interculture라는 용어를 ‘문화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cross-culture(교차 문화)와는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간 융합을 염두에 둔 용어 선택이다.
- 3) 내국인 사이에서도, 동료 집단 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한다.

## 2. 다문화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 흐름

정현숙(2005)에서는 경제 협상에서 드러나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은 남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본론을 꺼내는데 비해 미국인은 조금씩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청자의 이해 능력이 중시되고 미국에서는 화자의 언어 능력이 중시된다. 이는 고맥락 문화인 한국과 저맥락 문화인 미국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김순임 외(2007)에서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 유럽연합 국가와의 비즈니스에서의 문화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인의 무표정함은 주로 ‘화난 표정’으로 외국인들에게 비춰져 회사 내 분위기까지 좋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면담 결과는 비언어적 표현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최윤희(2000)에서는 비언어적 행위가 타문화(他文化)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몸짓, 신체 접촉, 얼굴과 눈을 중심으로 동서양을 비교하고 있다. 최윤희(2000)이외에도 문화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서양을 비교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사용하는 서양과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동양을 비교하는 연구가 서양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연구사와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비교한다든지, 서유럽과 동유럽을 비교한다든지,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는 사례는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서양인과의 문화간 의사소통보다도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국과 관련된 문화간 의사소통 연구가 필요하다. 2008년 법무부 통계<sup>4)</sup>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제일 많고, 미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다. 또 2009년 행정안전부 통계<sup>5)</sup>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4) 주요 국가별 체류 외국인 변화 추이(단위 : 명)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다.

박창균(2009)에서는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인 화자와의 면담을 통해 언어문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범주를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체계화하였다. 박창균(2009)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범주’에 나타난 언어문화 교육 내용 체계의 타당성과 논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문화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쉬워질 것이기에 이러한 연구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문화간 의사소통의 정의

홀(Hall, 1959)은 문화간 의사소통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문화간 의사소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8년   |
|-----|---------|---------|---------|---------|---------|---------|---------|---------|
| 중 국 | 159,475 | 201,184 | 223,410 | 237,497 | 281,934 | 282,030 | 382,237 | 556,517 |
| 미 국 | 87,457  | 94,131  | 101,786 | 106,390 | 105,315 | 103,029 | 108,091 | 117,986 |
| 일 본 | 25,861  | 33,167  | 36,648  | 42,504  | 42,949  | 39,410  | 43,207  | 51,763  |
| 베트남 | 19,009  | 19,717  | 20,799  | 24,908  | 28,655  | 38,902  | 54,698  | 84,763  |
| 필리핀 | 27,912  | 28,817  | 29,700  | 32,451  | 34,828  | 38,057  | 48,164  | 46,894  |

자료 : 법무부(2010년 8월 검색 결과)

#### 5)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단위 : 명)

| 구분         | 계                  | 중국<br>(조선족)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몽골             | 태국             | 대만           | 기타              |
|------------|--------------------|------------------|------------------|------------------|----------------|----------------|----------------|----------------|--------------|-----------------|
| 계          | 167,090<br>(100%)  | 53,754<br>(32.2) | 48,698<br>(29.2) | 30,779<br>(18.4) | 9,799<br>(5.9) | 5,364<br>(3.2) | 2,503<br>(1.5) | 2,242<br>(1.3) | 517<br>(0.3) | 13,434<br>(8.0) |
| 국적<br>미취득자 | 125,673<br>(75.2%) | 35,386           | 33,457           | 28,817           | 6,117          | 5,050          | 2,309          | 2,092          | 351          | 12,094          |
| 국적<br>취득자  | 41,417<br>(24.8%)  | 18,368           | 15,241           | 1,962            | 3,682          | 314            | 194            | 150            | 166          | 1,340           |

주 :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의 국적 취득자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2009년 5월 기준)

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문화적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문화간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이해까지를 문화간 의사소통 범주로 보고 이를 아울러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학자마다 정의가 각각 다른데, 김순임 외(2007 : 422)에서는 바이람(Byram, 1997)의 다음 네 가지가 이문화 능력을 갖추는 틀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 ① 심리학적 입장
- ② 의사소통적 언어학적 능력
- ③ 문화와 관련된 메타 지식
- ④ 전략적인 행위능력

슈크(Schugh, 2004 ; 김순임 외, 2007 : 422)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설명한다.

- ① 언어
- ② 비언어적 요소(표정, 몸짓, 손짓 등)
- ③ 사회적인 행동양식(인사, 쇼핑방법, 식음료 습관 등 대인과 조직 관계 내에 필요한 행동 양식 등)
- ④ 사회적인 관계(가족관계, 조직 내 상하관계, 카스텐과 사회적인 계급 등)
- ⑤ 동기(개인적,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모티브 개념, 성취동기의 형식과 사회적 동기, 권력동기 등)
- ⑥ 가치관과 이데올로기(행동양식에 대한 해석, 판단에 대한 인지적 개념,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낯선 문화와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알맞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Knapp 1999 : 9-11 ; 유수연 2008 : 14).

문화간 의사소통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단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베네트(Bennett, 1993)는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여섯 단계로 구분한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정교화, 세련화 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은 인지 구조 발달에 대한 이론으로 각 단계는 특정한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론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특정한 태도와 행동도 기술하고 있다(정진경 외 2005 : 194).

〈표 1〉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

| 단 계         |       | 특 성   |
|-------------|-------|---|
| 자민족 중심적 단계  | 부정 단계 | 자신의 문화가 현실인식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 문화 차이 회피  |
|             | 방어 단계 | 다른 문화들 간에 구분 가능,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김, "그들이 우리의 직장을 뺏고 있다"는 식의 의식                        |
|             | 경시 단계 | 드러나는 문화 차이가 있어도 이를 경시, 자신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김                      |
| 민족 상대주의적 단계 | 수용 단계 | 타문화 차이 인식하나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고 복잡적이라고 인식,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가치에도 위배 되지 않으려함. |
|             | 적응 단계 |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관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코드 전환                                     |
|             | 통합 단계 | 넓어진 경험세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자아 정체감을 재정의, 건설적 주변성   |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문화간 의사소통이란 다른 문화권을 배경 지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한재영 외(2005 : 507)에서는 브룩스(Brooks 1975)에 근거하여 문화 분류를 역사, 지리, 제도, 문화, 예술을 가리키는 대문화(Big C)와 언어 및 문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신념, 인지 체계를 소문화(little c)로 범주화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 교육에서는 행동문화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간 의사소통의 교육

내용은 ‘문화간 의사소통적 지식, 문화간 언어적 감수성, 문화간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범주는 교육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에 근거한 발상이다.

유럽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 모든 직업 영역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에 속한다(유수연 2008 : 14).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할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동질성을 근거로 고맥락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며 간접적인 의사소통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 문화는 생각, 느낌, 행동에 영향을 준다. 국제화, 세계화, 다문화 시대 속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문화간 언어적 감수성, 문화간 행위 능력은 인지적 사고, 정의적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4.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참고할 만한 교육 내용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 자료를 교과서 재구성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학습활동을 추가하여 학습활동지로 사용하는 문제는 교사들의 몫이라 해도 실제적인 교육 내용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로 빚어지는 문화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사용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2〉 면담 대상자

| 이름      | 한국체류기간          | 국적사항      | 직업      |
|---------|-----------------|-----------|---------|
| 수미아     | 10년             | 몽골계 혼인귀화인 | 주부, 농업  |
| 유키 이노우에 | 10년             | 일본계 혼인귀화인 | 주부      |
| 체타포 솜폰  | 3년              | 태국인       | 외국인 근로자 |
| 잉그리드    | 15년             | 캐나다인      | 영어 강사   |
| 정희운     | 7년<br>(미국체류18년) | 한국계 미국인   | 대학생     |

그러나 문화간 의사소통의 전문가가 아닌 외국인과의 결혼이민자로부터 교육 내용을 도출해 내는 작업은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마다 일의 방식, 위계질서, 시간 관념, 사적 대화, 문어와 구어, 호칭 및 어법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 상 오해나 문제점, 문화적인 차이, 갈등 경험의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면담을 시행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상 외로 교육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컸다. 그래서 서적이거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간 의사소통의 교육 내용 자료를 수집 구성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인터넷 자료에는 문자 언어 자료에서부터 동영상 자료까지를 포함한다.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언어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과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 II.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 1. 문화간 의사소통 자료 제시틀

학생에게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에는 한국 것을 먼저 소개하고 외국 것을 살펴보는 방식, 외국 것을 먼저 살펴보고 한

국 것을 소개하는 방식, 한국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 특이 사항만을 소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서술 방식이 있다. 또 다양한 관점의 서술 방식이 있다. 외국인의 관점으로 보는 설명, 우리나라 사람 관점으로 보는 설명, 귀화인의 관점으로 보는 설명 등 다양한 서술 관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는 권순희 외(2008)에서 제시한 ‘읽기 텍스트 구성 방안’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구안한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제시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텍스트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언어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수용되는 단위이다(Knapp & Watkins, 2005). 이러한 텍스트는 일방적으로 생산되고 수용되는 결과물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필자와 독자가 텍스트 내용과 형식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결과물이다. 권순희 외(2008)에서는 다문화 문식성 제고를 위해 텍스트 내용 범주로 정체성, 다양성, 협력이라는 주제와 문화 산물, 문화 실행이라는 소재, 사회·문화 내의 개인, 공동체라는 틀과 텍스트 형식으로서의 장르라는 틀을 논의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텍스트 구성 요인에 근거하여 필자, 독자, 관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독자<sup>6)</sup>는 텍스트 읽기 행위의 주체로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관점에서는 에믹과 에티컬 접근을 논의하면서 한 문화를 현지인의 토속적 개념과 논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인 에믹과 비교문화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외부적 기준, 용어, 도구 등을 활용하여 문화를 연구하는 에티컬 접근법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 요소, 학습자의 반응, 타 언어문화와의 관계라는 세 가지의 틀을 설정하였다.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제시 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본고의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제시 틀’에서는 독자 요인을 학습자 요인으로 바꾸어 설정함.

〈표 3〉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 제시 틀

| 교육 요소 틀      | 학습자의 반응 틀 | 타 언어문화와의 관계틀 |
|--------------|-----------|--------------|
| 문화간 의사소통적 지식 | 인식        | 차이로 인한 오해 사례 |
|              |           | 비교 사례        |
|              |           | 조화로운 수용 사례   |
| 문화간 언어적 감수성  | 이해, 수용    | 차이로 인한 오해 사례 |
|              |           | 비교 사례        |
|              |           | 조화로운 수용 사례   |
| 문화간 풍속과 행위   | 창작, 표현    | 차이로 인한 오해 사례 |
|              |           | 비교 사례        |
|              |           | 조화로운 수용 사례   |

이 틀은 권순희 외(2008)와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축적된 연구 성과물에 근거하여 구안해 본 것이다.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틀로 문화간 의사소통적 지식, 문화간 언어적 감수성, 문화간 풍속과 행위를 교육 요소로 정하고, 인식, 이해, 수용, 창작, 표현을 학습자의 반응 틀로, 차이로 인한 오해 사례, 비교 사례, 조화로운 수용 사례와 같은 관계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시 틀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틀에 대한 논의는 또 하나의 심도 있는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제시 틀에 따른 교육 자료도 풍성하게 발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틀에 근거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교육 자료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할 교육 자료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간 의사소통의 일화를 제시하여 문제 의식을 제공할 것이며, 둘째, 세계화됨으로써 언어문화 이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자료로 제시하겠다. 셋째, 언어문화 텍스트를 분석한 후 이것에 근거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 자료를 제시하겠다.

## 2. 문화간 의사소통 일화

우리는 불편없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말에 담긴 문화에 대해 선 이는 바가 별로 없다. 우리말에 담긴 문화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문화간 의사소통을 탐구해야 한다. 문화간 의사소통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보다 넓은 관점, 객관적 관점으로 우리말을 파악할 수 있다.

나상배(2003 : 67)는 중국이 폐쇄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이 줄곧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민족은 품은 반면 다른 이민족은 배척하는 태도를 견지한 결과 중국의 고유한 철학이나 종교, 예술, 문화 등을 중국의 주변국가에게까지 깨닫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나상배의 견해는 외부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바라보고, 문화간 차이를 알아가는 것과 함께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

여러 일화를 토대로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어에 대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다.

(예 2-1)

미국인과 결혼하기 원하는 한 여성이 부모님께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 장모될 사람이 음식을 잔뜩 차려 손님맛이를 하면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먹어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한국말에 유창하지 못한 이 미국인이 “예, 맛은 없지만 많이 먹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예 2-1)은 자신을 추켜 세울 수 없는 언어문화의 양상으로 장모가 돌려 말하기를 한 사례이다. (예 2-1)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와 자신의 자량을 감추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 사례는 동음이의어나 관용어와 관련하여 문화간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예 2-2)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설렁탕을 파는 식당에 갔다.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잠시후 옆 좌석에서 “여자 친구하고는 잘 되어 가?”라고 하자 “말도 마, 애를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식인종인 여자 친구도 있나하고 의아해 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 외국인이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 한 손님이 와서 “원장님, 머리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자 기절할 뻔 했다.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일화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몽골에서 시집온 지 10년이 된 수미아 씨는 최근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두 아이에게 ‘호랑이와 오누이’ 책을 읽어 주게 되었다. ‘오누이’가 ‘다섯 명의 누이’라는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책을 읽었는데 다섯 명의 누이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오빠와 누이’를 ‘오누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석봉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사례이다. J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던 M교수의 일화이다. 한석봉 이야기를 읽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에서 온 한 학생이 “선생님, 한석봉 어머니가 마녀입니까?”라고 질문했다는 내용(권순희, 2008 : 31)이다.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식칼을 들고 불을 끈 상태에서 떡을 찌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글씨를 쓰는 불을 끈 상태에서 쓰는 일이 없는데도 불을 끈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한 행동, 엄마의 떡 찌는 기술과 아들의 글씨 쓰는 솜씨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가지런한 떡과 비뿔비뿔한 글씨를 비교하여 혼을 낸 행동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한석봉 어머니는 마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교 문화권에서의 자녀 양육 문화와 이슬람교 문화권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의 자녀 양육 문화가 다르다는 것과 민담에

7) 문화에 따라 어머니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베스트셀러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번역본으로 곧 출간된다(2010년 7월 23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등장하는 마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3. 언어문화 이해의 변화

문화간 의사소통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물에 대한 연상이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연물이나 생활 속의 여러 개념에 대하여,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식적인 이해나 분류가 문화마다 다르다. 이를 민간모형이라고 한다. 민간모형은 어떤 문화의 영역에서 지식이나 신념의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른바 ‘문화적인 인지의 토대’가 된다. 언어 사용의 실제 속에는 이러한 문화적 인지의 양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화권 사람들의 언어의 방식으로 이해나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는 수사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명국 사람들이 그것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민간모형이기도 하다(Tsuji, Y., 2002, 임지룡 외 옮김, 2004 : 70 ; 박인기 2006 : 12).

우리나라에서는 천둥 번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만난 캐나다인 잉그리드는 천둥 번개를 보고 “신이 만든 불꽃놀이”라고 말하였다. 천둥 번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sup>8)</sup>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표현에 놀란 연구자는 왜 불꽃놀이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물어본 경험이 있다. 잉그리드는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잘 시킨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건물 안에 빨리 들어가서 피해야 한다

---

참고) 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공감을 받아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이 책이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공감을 받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어머니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할지 지켜볼 일이다.

8) 천둥 번개에 대한 서양인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기독교 찬송가(2001년판) 40장, 77장에 따르면 ‘뇌성’은 ‘주님의 권능’을, ‘뇌성과 번개’는 ‘주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는 것을 가르친다. 그 결과 천둥과 번개가 치는 상황에서 실외에 나와 있는 일이 없다. 비가 내릴 때 실내로 피신한 상황에서 천둥, 번개가 왜 두렵겠느냐며 천둥, 번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답하였다. 어휘에 대한 이미지에겐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역사적 이미지, 생활사적 이미지가 있다. 역사적 사건, 생활사적 사건으로 형성된 어휘에 대한 이미지가 후손에게 교육 전승되는데 어떤 어휘는 긍정적 이미지로, 어떤 어휘는 부정적 이미지로 전승된다. 그 결과 민족이나 문화 공동체마다 어휘에 동반되어 연상되는 이미지<sup>9)</sup>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비상구’라는 표현과 중국의 ‘안전문’이라는 표현의 예를 들어보자. 위협할 때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있는 문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비상구’라는 표현과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문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안전문’이라는 표현에 동반되는 이미지는 다른 것이다.

민족이나 문화 공동체마다 지니는 가치관, 종교, 교육 등으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전승된다. 관용어구에 나타나는 어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 ‘미역국 먹었다’는 관용어구가 있다. 미역국과 시험에 낙방하는 것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논리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미역이 ‘미끄럽다’는 것과 시험에서 ‘미끄러진다’는 발음 연상 때문일 것이라는 민간설이 있다. 미역국과 시험 낙방과의 관련성에서 미역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생활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시험이 있는 날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 관습까지 생기게 된다. 미역국이 항상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관습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한다. 미역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습과 함께 부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관습은 대를 거듭하면서 전해진다. 시점을 알 수 없는

9) 같은 대상을 달리 표현하는 사례로 우리나라 사람은 ‘새가 운다’고 표현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비상구(非常口)’라고 표현하고 중국인이나 대만인은 ‘안전문(安全門)’이라고 표현한다. 중국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구를 태평문이라고 표현한다(김미형 외 2005 : 152에서 잘못 소개하고 있어서 바로 고침)고 하나 이는 사투리인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영안실(靈安室)이라고 표현하고 중국 사람들은 태평실(太平室)이라고 표현하다.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시험에 관련해서는 미역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 시대의 사회생활이 그 시대의 언어 내용을 결정하며, 언어의 내용 또한 한 시대의 사회생활의 갖가지 측면을 반영한다.<sup>10)</sup> 그러나 교육적인 대처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해 그 이미지가 변모할 수도 있다. 미역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관용어구는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시험보는 날 미역국을 먹고 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어구가 사라지거나 변할 수도 있다. 미역국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역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관습이다.

문화간 의사소통을 겪으면서 위 사례와 같은 언어 현상에 대한 통찰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언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언어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언어문화의 계승과 창조라는 두 고리가 길항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개인사에서도 가치관의 변화로 어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듯이, 한 언어 공동체에서도 가치관의 변화와 어휘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함께 동반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노동(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고 하자. 한 개인이 젊은 시절에 노동이란 하기 싫은 것, 피해야 할 것, 몸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 등의 가치관으로 노동을 회피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가치관의 변화로 노동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고, 돕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노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노동을 통해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면 동일한 사람이 노동(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도 가치관이 변하기 전과 후의 이미지는 각기 다르다. 전자에서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였다면 후자에서는 긍정적

10) 나상배(2003 : 19)에서는 ‘家’가 집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 원시시대 때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돼지를 키우는 구조였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로 변모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듯,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 공동체 내의 생각의 변화는 어휘를 포함한 언어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언어 사용 양상을 바꿀 수도 있다. 변화 가운데 교육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육이 감당할 수 있다.

범주화에 있어서 동양인과 서양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치우리양황의 실험(니스벳 저, 최인철 역, 2004 : 137)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과 중국의 어린이에게 소와 닭, 풀 그림 3개를 보여주고 그 중 2개를 묶는다면 무엇을 묶을지 시켜보았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같은 분류 체계에 속하는 소와 닭을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였고, 중국의 어린이들은 ‘관계’에 근거한 방식을 선호했다. 즉 소와 풀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이유가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다’라는 관계적 이유 때문이었다. 니스벳(최인철 역, 2004 : 138)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중국, 타이완의 대학생들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팬더 곰, 원숭이, 바나나를 보여주고 비교한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중국과 타이완의 대학생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는 서로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숭이와 바나나를 고르는 경향을 보였고, 미국의 대학생들은 팬더 곰과 원숭이를 고르는 경향을 보였다.

계급, 나이,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문화간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다.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브룬디왕국에서는 계급(카스트), 나이와 성별의 조합으로 의사소통상의 관습 규칙이 있다. 나이든 사람이 젊거나 어린 사람보다 먼저 얘기를 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말을 할 때 이 연장자 규칙은 엄격하다. 반면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먼저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은 자유로운데 반해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자들은 낮은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전혀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을 걸어올지라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Crystal 1997 : 38).

상위 계급(카스트)의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집단과의 토론에서, 연장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이것은 안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침묵을 지킨다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Crystal 1997 : 38). 우리나라에서는 침묵이 긍정으로 즉 이견 없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브룬디왕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삭스(Sacks)는 가핑켈(Garfinkel)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문화에 중독되어 그대로 행동하는 문화중독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대신에 삭스는 문화를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표현장치인 추정장치로 생각하였다(조영달 2005 : 209). 이 점은 여타 다른 사회과학자들과 달리 생각한 점이었다. 연구자도 삭스(Sacks)의 견해에 동의한다. 인간은 문화에 흠뻑 젖어 헤어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배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별이다.

#### 4. 국제화된 한국어

황병순(1996)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어서지만, 향가나 고려 가요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이 80 : 20, 송강 가사에만 해도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이 70 :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밝힌 심재기(1990 : 78)의 논거를 들어 우리말의 한자어 비중이 옛 날에는 오늘날처럼 높았던 것이 아니라고 추론<sup>11)</sup>한다. 우리말에 한자어가 70%를 넘어서는 이유를 황병순(1996)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연관시켜서 논의하고 있다. 황병순은 청나라<sup>12)</sup>를 통해 유입된 실학과 서구 문물,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구한말의 서구 문물과 구한말의 친일 세력, 일본제국의 영향 등으로 한자어가 급증하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말이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

11) 향가와 고려 가요, 송강 가사 등 몇 편 되지 않는 글을 중심으로 이 논거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할 면이 있다. 앞으로 확실한 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2) 그 이전에도 당, 송,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일면 타당한 발상이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후손에게 우리말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문화 시대가 된 요즘에는 우리말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선견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말에서 될 수 있으면 버려야 할 것으로 가르친다. 반면에 우리나라 말이 국제화 된 것을 정리하는 작업에는 인색하다. 태권도, 효도, 한복, 한글, 삼성, 현대(←현대), 비빔밥, 김치, 불고기, 빨리빨리, 화병 등의 어휘는 세계화된 어휘<sup>13)</sup>이다. ‘화병(hwabyung)’이라는 어휘는 1995년 미국정신의학회에 정신의학용어로 공식 등록되었다.

보통 화병은 울화병(鬱火病)이라고도 하는데, 오랫동안 속으로 화를 삭힌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질환으로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식병명이 되었는데,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는 1995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 (DSM-IV)”에서 화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병(hwabyung)이란 한국 민속 증후군의 하나인 분노 증후군으로 설명되며 분노의 억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불면, 피로, 공황, 압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한 기분,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빠른 맥박, 전신통 및 상복부의 덩어리가 있는 느낌을 가지는 증후군이다”

(출처 <http://www.women-net.net/>, 2009년 10월 검색)

다양한 문화간 의사소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다. 다름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여 국제화 속에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점검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언어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게 할 것이다.

13)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재영 외(2010), 한국어 어휘교육론, 태학사(근간 예정)를 참고할 것. 세계화된 한국어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 보급하면서 한국어 어휘가 세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언어문화 텍스트 자료

다음에 제시된 언어문화 텍스트는 외국의 언어문화 텍스트와 한국의 언어문화 텍스트를 소개하고자 선정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어문화 텍스트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외국의 언어문화 텍스트는 대표성을 띠는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인 결혼이민자 수로 볼 때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범주화의 대표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 1) 중국인의 언어문화 분석을 통한 자료

중국의 언어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福(복) - 倒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명절이 춘절(春節)이다. 음력 1월 1일 춘절에는 전통적으로 각종 풍속과 행사를 즐긴다. 그 중 하나가 춘련(春聯)이다. 춘련은 붉은 종이에 검은색이나 황금색으로 축복의 좋은 글자를 적어서 대문에 붙이는 것을 가리키



는데, 대부분 붉은 종이에 福(복)자를 써서 문에 거꾸로 붙여놓는다.

이것은 ‘거꾸로’를 의미하는 ‘倒(도)’와 ‘오다’를 의미하는 ‘到(도)’의 발음이 같아서, ‘福(복)’을 거꾸로 붙이는 행위인 ‘福倒(복도)’가 ‘福到(복도)’, 곧 ‘복이 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人(인) - 丫

중국에서는 사람을 찾는 광고(尋人啓示)를 붙일 때, ‘人(인)’자를 거꾸로 하여 ‘丫’이라고 써놓기도 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번째는, 중국인들에게 ‘人(인)’자는 윗부분이 사람의 머리와 아랫부분이 두 다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래로 가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어 찾기에 용이할 것이고, ‘人(인)’자를 제대로 쓰면 두 다리로 더욱 멀리 가버려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의 사례(福倒와 福到)와 마찬가지로 ‘人(인)’자가 거꾸로 됐다(人倒了)는 것은 사람이 도착했다(人到了)는 것과 발음이 같고 다시 말해, 사람이 돌아왔다(人回來了)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인에게 벽시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다. 鐘(중) - 終(중)

중국에서는 벽시계를 선물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인들은 친구가 새로 집을 이사했을 때,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결혼했을 때 절대로 벽시계를 선물하지 않는다. 벽시계를 중국어로 鐘(중)이라고 한다. 발음을 하면 “중”이다. 그런데 ‘선물하다, 주다’라는 뜻의 送(송)과 벽시계의 뜻인 鐘(중)이 합쳐져서 ‘벽시계를 주다’는 표현이 送鐘(Shòng Zhōng : 송중)인데 ‘임종을 지키다’는 표현 送終(Shòng Zhōng : 송중)과 같은 발음이다. 送終(송중)은 중국어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길을 배운다는 데서 유래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벽시계를 선물한다면 친구가

빨리 죽거나 사업이 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손목시계는 Shǒu biǎo(써우 묘우)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선물해도 괜찮다.

한국인과 결혼한 한 중국 여성이 결혼 후 시댁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때 초대된 한국인 친척이 벽시계를 선물하였다. 벽시계를 선물 받은 그 중국인은 당시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를 알고 나서 벽시계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중국에 벽시계를 수출한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인의 고급 벽시계 구매가 높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일화는 중국의 문화를 몰라서 발생한 일이다. 중국인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 2) 광고 텍스트 분석을 통한 자료

우리나라 광고<sup>14)</sup>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여주고 문화간 의사소통의 차이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 반응에 근거하여 문화간 의사소통의 차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광고에 나타나 있는 비석은 광개토태왕비이다. 한국인이란면 잘 알고 있는 비석이다.

광고에서 광개토태왕릉비를 거꾸로 한 그림을 볼 수 있다. 또 가운데 쓰인 ‘逆史’(거스를 역, 역사 사)라는 문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歷史(지낼 력, 역사 사)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逆史(역사)는 거슬러서, 즉 거꾸로 쓴 역사를 뜻한다. 한자 문화권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겨냥한 표현임



14) 광고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generation\\_prize\\_view.asp?year=2004&prizeinfoNo=44&flag=0](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generation_prize_view.asp?year=2004&prizeinfoNo=44&flag=0)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2004년 잡지부문 우수상 수상작이다.

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글자를 거꾸로 쓰는 문화가 있다(5.(1)가. 자료 참고). 중국의 문화에서 표현 발상을 가져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표현 발상이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은 한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거꾸로 표현된 광개토태왕비로 보아 우리는 이 광고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한 지 3년이 되었다는 태국인 체타포 솜폰은 이 광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특히 역사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태국에도 이와 비슷한 비석이 있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광고 속에 나타난 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또 한자 문화권이 아니므로 逆史(역사)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비판적인 의미도 찾아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도 없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동남아시아계의 외국인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발상과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만을 위한 광고의 표현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이 아닌 외국인도 이해하기 쉬운 광고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간 의사소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광고에 나오는 ‘노란색 마크’의 의미에 대한 태국인의 반응을 살펴보자.

“처음부터 계속 중간마다 나오는 걸 보니까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한 마크 같아요 색깔도 노란색이라서 눈에 잘 띄고 안에 말 3마리<sup>15)</sup>가 있는 걸보니 말고기를 파는 음식점 같아요.” 한국에서 3년 살았다는 한 태국인의 반응이다.

체타포 솜폰은 마패에 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기에 이 마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패는 주로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증표이다. 이것은 암행어사가 지니고 있던 것이다. 이

15) 면담 중 연구자가 말 그림이라고 설명해 줌.

광고에서는 한우임을 증명한다는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감시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마패를 사용하였다.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장면을 보면서 알았다. 그렇기에 ‘마패’ 하면 암행어사를 바로 떠올리고, 마패가 보증서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암행어사는 감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연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은 마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태국인은 다음 광고<sup>16)</sup> 속에 나오는 암행어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체타포 솜폰은 광고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암행어사와 광고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 3) ‘웰컴투 동막골’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한 자료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재미교포와 일본인 국제 결혼 이민자에게 보여 준 후 그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화 텍스트 교육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 광고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

가. 홍보 포스터<sup>17)</sup>의 비언어적 표현



좌측의 그림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한국용 홍보물이다. 이 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50년, 지금은 전쟁중?”이라는 빨간 글씨이다. 시대적 배경인 1950년 6·25전쟁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한국인은 빨간 글씨를 보며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 빨갱이를 연상하게 된다. 이 글귀가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

대체로 한국인은 6·25전쟁을 다른 영화를 재미있어 하며 즐겨보는 편이다. 이 포스터를 접한 한국인은 이 영화가 6·25전쟁을 다뤘다는 사실을 금방 인식하며 큰 기대를 하고 영화 관람에 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 6·25전쟁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한국인과는 달리 그것을 다른 영화라는 점에 큰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또한 미국인의 경우 6·25전쟁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이 영화가 역사적 사건에 배경을 둔 것이 아니라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응하기도 한다. 1950년 전쟁을 가정하고 만든 영화라고까지 생각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웰컴투 동막골’ 영화를 일본과 미국에서 개봉할 때 나라마다 다른 포스터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판 포스터의 경우는 한국용 홍보물과는 달리 몽환적이고 판타지적인 느낌을 살려 표현했다. 소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넓은 잔디가 보이는 들뜬에 헬리콥터 한 대를 배경으로 삼아 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판 포스터에서는 6·25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강조하는 빨간색 글씨를 지우고 헬리콥터와 주변 풍경을 강조했다. 또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을 간략하

17) 홍보포스터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검색

게 처리하였다. 공동체를 중시한 한국용 포스터와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같은 영화일지라도 포스터를 제작할 때 여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영화에서 강조할 부분을 다르게 선정하며 다양하게 표현한다.



(일본판)



(영어판)

### 나. 대사 속의 언어적 표현

인민군 하사관 장영희(임하룡) : (여일(강혜정)을 가리키며) 동지, 꽃 꺾았 습네다<sup>8)</sup>.



- 18) 영어판에서는 “She has a flower in her hair”라고 번역되어 있다. 영어판에서 ‘꽃을 꺾는다’는 표현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본판의 경우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화 요인이 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기모노를 입고 외출할 때 장식 꽃(조화) 머리핀을 머리에 꽂음으로써 단장을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으며 현대에도 기모노를 입고 꽃 장식을 한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꽃을 꺾는다’는 ‘장식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갖는다.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인민군 3명이 바위에서 잠시 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동막골의 ‘여일(강혜정)’을 만나며, 여일(강혜정)의 이상한 언행을 보고 인민군 하사관 장영희(임하룡)가 인민군 장교 리수화(정재영)에게 그녀를 가리키며 “동지, 꽃 꺾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인민군 하사관 장영희(임하룡)가 여일(강혜정)을 가리켜 대놓고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 대사를 들은 한국인은 누구나 즉시 인민군 하사관 장영희(임하룡)가 여일(강혜정)을 가리켜 소위 ‘정신이상자’라고 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리수화(정재영)의 표정 변화도 이해하며 이 장면을 감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를 들은 정희운<sup>19)</sup> 씨는 대사를 듣고 나서 왜 리수화(정재영)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꽃 꺾었다’라는 말이 ‘정신이상자’를 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자 전혀 유추할 수 없었다고 반응했다. 영화를 한국인 남편과 같이 본 유키 이노우에<sup>20)</sup> 씨는 남편에게 그 말 뜻을 물어보고 나서야 ‘꽃 꺾었다’라는 말의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그 장면 역시 뒤늦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여일(강혜정) : (국군 일행들에게) 뭐 좀 먹었어요?



국군 일행들에 뒤이어 인민군 3명이 동막골로 들어오면서 서로 대치하는 도중에 등장한 여일(강혜정)이 국군 일행들에게 ‘뭐 좀 먹었어요?’ 라며

19) 한국에서 태어나 7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그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현재 25세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 가명임.

20)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인으로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이 됨. 가명임.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다. ‘뭐 좀 먹었어요?’라는 인사말은 국군 일행들이 동막골로 처음 들어왔을 때 촌장이 국군 일행들에게 건네기도 한 말이다.

‘뭐 좀 먹었느냐?’ 혹은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말은 한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즉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에 생겨난 인사말이다. 상대방이 밥은 잘 먹고 건강한지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기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영화는 195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뭐 좀 먹었어요?”라는 인사말이 나온다.

이 대사를 접한 한국인은 그 말이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희운 씨는 이 대사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유키 이노우에 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밥 먹었는지’를 묻는지 몰라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인사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밥 먹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국군위생병 문상상(서재경) : (국군 장교 표현철에게) 저런 귀퉁만한 놈 상대해봤자 우리만 쪽 팔리잖아요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인 동막골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인민군 패잔병들과 국군 탈영병들이 서로 적대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켜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다.

‘쪽 팔리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쪽이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얼굴 팔리다’는 뜻으로 체면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해석이다. 한편 ‘쪽’은 ‘시집간 여자가 뒤통수에 땀이 틀어 올려서 비녀를 꽂은 머리털’을 일컫는 명사이므로 ‘쪽 팔리다’는 머리카락을 팔았다는 의미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발부수 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며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쪽’이 팔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팔았다<sup>21)</sup>는 의미이니 부끄러운 일을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해석이야 어떠하든 이 대사를 들은 한국인은 ‘쪽 팔리다’라는 표현을 ‘부끄러운 행동을 하여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이 대사를 들은 유키 이노우에 씨는 ‘쪽 팔리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정희운 씨 역시 ‘팔리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바람에 ‘부끄럽다’라는 뜻이 아닌 ‘쪽’이라는 무언가가 ‘팔리다(sell)’의 의미로 파악했다. 이 장면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동막골 이동구의 어머니 : (동막골 부락촌장에게) 동구까정 깨나갈까봐 애가 다 타유.



동막골의 어린이 이동구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 스미스(Smith)와 전투기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매일 따라다니자, 동구의 어머니가

21) 가난할 때 경제적 보탬을 얻고자 머리카락을 팔기도 했다. 머리카락은 가발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동막골 부락촌장에게 동구가 외국인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동막골을 떠나버릴까 걱정이 된다며 하소연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애가 탄다’라는 말은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심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이뤄져야 할 일이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나거나 초조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는 뜻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은 이 대사에 나타난 동구 어머니의 심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유키 이노우에 씨는 ‘애’를 ‘어린 아이’의 줄임말로, ‘탄다’를 ‘불에 타다’의 의미로 보고 갑자기 동구가 불에 타죽기라도 하나 깜짝 놀랐다고 말하였다. 정희운 씨도 ‘애’를 ‘어린 아이’로, ‘탄다’를 ‘탈 것을 타다’라는 의미로 보아, 동구가 무언가 탈 것을 타는 걸로 이해했으나 상황이 맞지 않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반응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애가 탄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영화 속 동구 어머니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했다.

별에 쏘여 상처를 입은 연합군 대위 스미스(Smith)에게 할머니가 된장을 발라주는 장면



동막골 어린이 이동구의 장난으로 별에 쏘여 상처를 입은 연합군 대위 스미스에게 할머니가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 된장을 발라주는 장면이다.

예전에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약품이 없어 아픈 곳에 민간요법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민간요법 중 하나가 별에 쏘이거나, 여러 상처가 났을 때 된장을 상처 부위에 펴 바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상처부위에 된장을 바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러나 유키 이노우에 씨는 된장이 상처 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장면을 보며 왜 음식을 상처에 바르느냐고 의아해 했다. 유키 이노우에 씨에게 된장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항암, 항독소 성분이 상처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음식이 어떻게 상처 치료에 쓰일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정희운 씨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 장면을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반응했다.

동막골 부락민 : 명석을 깔아 놓으니까 안 하잖아. 깔지 말았어야 해.



상상에게 영희가 노래를 권하고 동막골 사람들이 호응해주는 장면에서 자꾸 상상이 노래를 하지 않으려고 들자 동막골 사람 한 명이 구수한 사투리로 ‘명석을 깔아주니까 못한다. 명석을 안 깔아줬으면 했을 텐데’라는 의미의 말을 하는 장면이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명석을 깔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명석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명석이란 농가에서 흔히 곡식을 넣어 말리는 데 쓰거나, 잔칫집에서 마당에 깔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방에 깔기도 하는데 쓰던 물건이다. ‘명석을 깔다’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다’라는 의미이다.

이 대사를 들은 유키 이노우에 씨와 정희운 씨에게 뜻을 알 수 있었냐고 물어보자 명석이라는 단어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키 이노우에 씨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정희운 씨는 이 말이 ‘무대를 만들어주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알려주자 그 뜻을 알아 차렸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화 감상문이다. 외국인의 반응을 참고할 수 있어 여기에 실는다.

영화<sup>22)</sup>를 통해 느낀 소감<sup>23)</sup>

YojiroDさんの 감상평

傑作!! 戦争が起きていることも知らない平和な村に米兵と韓国軍兵士、朝鮮軍兵士數人がやってきて、最初は敵對するも段々と心を通わせていく話。觀る前から「これは絶対に面白いだろう」と思っていたが、やっぱり面白い。作りも丁寧。役者も良い。ジブリでお馴染の久石讓が音楽をやっていて良い感じにファンタジーっぽい雰囲気をつくってくれている。殺し合いをしていることが馬鹿らしくなって、笑顔になる。全韓國人と朝鮮人に觀て欲しい。最後はちょっとしんみりしてしまうが、感動できる本当に良い映畫。韓國の映畫界はこれからも頑張って欲しい

(결작!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평화로운 마을에 미군과 남한병사, 북한병사 몇 명이 흘러들어와 처음에는 적대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간다는 이야기. 감상 전부터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재밌었다. 매우 공들인 작품. 배우들의 연기력도 좋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친숙한 히사이시 조가 음악을 담당하여 적절하게 판타지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서로 죽이려드는 것이 웬지 어이없어져서 웃음이 난다. 모든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은 꼭 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에는 조금 침울해지지만 충분히 감동적인 좋은 작품. 앞으로도 한국의 영화계에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thespectralsorrow님의 감상평

—Its interesting to see how the 2 warring parties get together and realize that

22)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쉽게 구성된 웰컴투 동막골 부분 영화를 아래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W0HHN7xE5Cw&feature=related>

23) ‘웰컴투 동막골’ 영화에 대한 외국인의 소감문을 소개한 것이다. 검색은 <http://www.yahoo.com>, <http://www.yahoo.co.jp>에서 이루어졌다. 원문 하단에 연구자가 번역문을 덧붙였다.

they are basically the same, just fighting on a different side (like the US civil war).

(적대적인 입장에서 싸웠던 두 군대가 나중에는 서로 화합하고 기본적으로는 두 군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흥미로운 영화이다. 미국의 남북전쟁<sup>24)</sup>과 일맥 상통한다.)

#### nozawana님의 감상평

韓國で記録的な動員を誇った本作。敵對する同士がトンマッコルという架空の村で出會い、心を通わせていくストーリー。ストーリーだけ聞くと嫌いじゃないし、感動も期待してたけど、思ったほどじゃなかった。韓國で大ヒットした理由は、民族間の争い（北朝鮮と韓國）が、現實的な問題として今でもあるし、氣持ちのどこかで、理想郷として『トンマッコル』を 思い描いているんだろうね。

(한국에서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한 작품. 적대관계인 사람들이 동막골이라는 가공의 마을에서 만나 마음을 열어 간다는 스토리. 스토리만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었고, 감동까지 기대했지만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크게 히트한 이유는 민족간의 전쟁(북한과 남한)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음 한 구석에 이상형으로서 <동막골>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상의 영화 감상평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이 한국 영화를 볼 때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국면이 드러난다. 면담 대상자였던 유키 이노우에 씨의 감상평과 한국인의 일반적인 감상평을 비교해 보아도 영화 이해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 유키 이노우에씨의 감상평 : 한국의 남북전쟁과 관련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접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약간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 내서 화합된 모습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장면과 판타스틱하고 평화로운 동막골의 배경이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긴장과 완화, 이

24) 우리나라 6·25 전쟁을 미국의 남북 전쟁과 비교하며 영화를 감상한 것이다.

야기의 전개방식, 음향효과 모두 흠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북전쟁,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한국대중들의 일반적인 감상평 : 분단된 대한민국,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 그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삶에 아픔으로 슬픔으로 남아있다. 이 영화는 동막골이라는 하나의 가상의 그리고 또한 이상향의 마을을 그리고 있다. 동막골. 그리고 그 속에 사는 하나된 한민족의 모습은 현재 우리 조국의,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참으로 슬프고 고마운 영화라고 생각된다.

### III. 결론

국어교육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은 어떻게 다루며,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은 국어과에서만 실시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전과목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 교육에서는 언어문화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달리 접근하는 문화간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 다양한 문화 교육 접근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교육을 위한 국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문화교육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국어 교육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만으로도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아직 미흡하다. 국내외적으로 교육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도 국제 상황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이다.

우리나라 중심적 표현을 지양하고 국제적 감각의 표현을 키우는 것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다. 세계적으로 유통될 광고와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중심적 표현으로는 호소력에 한계가 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공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은 첫째,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같음과 다름을 알게 하고, 적극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보편적인 언어문화가 무엇이고, 차이 나는 언어문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국제적인 감각의 문식성을 지닌 한국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줄 것이다.

둘째, 한국어를 새롭게 보는 안목을 키워준다. 국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표현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우리나라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에 대처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 능력만이 아니다. 외국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고 외국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었을 때 협상 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 본 논문은 2010. 4. 29. 투고되었으며, 2010.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8), “내용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운용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3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권순희 · 김호정 · 이수미(2008), “다문화 문식성 제고를 위한 읽기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3집, 국어교육학회.
- 김미형 외(2005), 『인간과 언어-본능과 능력 사이-』, 박이정.
- 김순임 외(2007), “유럽연합 국가와의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기반연구”, 『독어교육』 40,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나상배 저, 하영삼 역(2003), 『언어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니스벳 저, 최인철 역(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
-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 박창균(2009),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언어문화 교육 내용의 체계화”, 제1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 한국 사회 말문화와 언어예절, 한국화법학회.
- 삼성경제연구소(2002), 한국 기업경쟁력의 실상과 과제, 『CEO Information』 377호, 2002년 12월 4일자.
- 심재기(1990), “국어 어휘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유수연(2008),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정진경 · 양계민(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24(1).
- 정현숙(2005), “한·미 문화간 비즈니스 협상 사례연구 : 한국인 무역 중개인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4).
- 조영달(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교육과학사.
- 최윤희(2000), “비언어 행위와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일 고찰”, 『한국커뮤니케이션학』 8,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황병순(1996), 『말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태학사.
- Tsujii, Y. 편(2002), 임지룡 외 역(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진』, 한국문화사.
- Bennett, M. J. (1993), Toward ethnorelativism :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ed., pp21-71), Yarmouth, Me : Intercultural Press.
- Crystal, D. (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CT : Fawcett.
- Knapp, P. & Watkins, M(2005), *Genre, Text, Grammar*, UNSW Press.

<초록>

## 다문화시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권순희

문화간 의사소통이란 낯선 문화와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알맞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다른 문화권을 배경지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간 의사소통에 관련된 실질적 교육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간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틀로 문화간 의사소통적 지식, 문화간 언어적 감수성, 문화간 풍속과 행위를 교육 요소로 정하고, 인식, 이해, 수용, 창작, 표현을 학습자의 반응 틀로, 차이로 인한 오해 사례, 비교 사례, 조화로운 수용 사례와 같은 관계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시 틀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간 의사소통의 일화를 제시하여 문제 의식을 제공하였으며, 둘째, 세계화됨으로써 언어문화 이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 언어문화를 소개하고, 광고, 영화에 나타난 외국인의 관점으로 살펴본 언어문화 이해를 기술함으로써 문화간 의사소통 자료를 제시하였다.

문화간 의사소통 자료는 방대한 양을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문화간 의사소통, 언어문화 이해, 다문화, 교육 자료

<Abstract>

## Educational Materials for Improv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Multicultural Age

Kwon, Soon-he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s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and their systems of value, to communic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in the appropriate manner, and to understan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In other words, that means the practical ability to interact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In order to improv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it is necessary to present substantial materials.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present materials for the educa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s the framework for presenting materials for the educa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knowledge, intercultural linguistic sensitivity, and intercultural customs and actions were chosen for educational elements. Recognition, comprehension, reception, creation, and expression were offered as the learners' action framework. Examples of misunderstanding due to differences, examples of comparison, and examples of harmonious acceptance were exhibited as the relations framework for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These frameworks should be studied not by analytical manner but by integrated manner. Through this study educational materials were suggested as follows : 1) Awareness of issues was offered by showing episod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 Data, supporting the idea that understanding of language and culture could be varied by globalization, were presented, 3) Material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ere presented by introducing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nd analyzing the foreigners' understanding of language and culture appeared in advertisements and movies.

Further joint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make the systems for treating a large amount of material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Key wor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f language and 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al materials